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 조 정 조 서

사건번호 2022전북조정11/12

청 구 명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나기학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635 (소룡동) 2층

피신청인 전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50 (중화산동2가)
대표이사 김한광

중재부장 정은영 기 일 : 2022. 4. 19. 17:30

중재위원 이홍래 장 소 : 전북중재부 심리실

중재위원 이연주 공개여부 : 비공개

조 사 관 최승민

신 청 인 나기학 출 석

피신청인 대리인 고차원 출 석

위 당사자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나기학
고차원

신 청 의 표 시

조정대상기사

1. 전주MBC-TV

2022년 1월 11일 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똑같이 '건설회사 지분' 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 제하의 방송

2. 전주MBC 홈페이지

2022년 1월 11일 전북권NEWS면 "똑같이 '유한회사 지분' 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 제하의 기사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전주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을 당사 홈페이지 전북권 NEWS면과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조정신청이유

피신청인은 지방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와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도의회 발언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도의회 발언은 이해충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2022년 1월 11일

조 정 사 항

1. 보도문

가. 제목 : [반론] 유한회사 지분 보유 관련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전북권NEWS <똑같이 '유한회사 지분' 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 제하의 기사에서 지방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와 문제점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기학 전북도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도의회 발언은 이해충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도의원 당선 후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22년 4월 26일까지 전주MBC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똑같이 '유한회사 지분' 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 하단에 제1항의 제목과 본문을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조 사 관

최 승 민



중재부장 중재위원

정 은 영



2022년 4월 26일

[별지]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정정보도] <유한회사 지분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뉴스 관련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11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전북권 NEWS면에서 <유한회사 지분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 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와 문제점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 도입부에 '나기학 도의원'을 예로 제시하면서, 도의회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용된 발언의 내용과 취지는 이해충돌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뉴스 말미 '사전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통해, 해당자를 나기학 도의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나기학 도의원은 2018년 도의원 당선 이후,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1월 11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전북권 NEWS면
에서 <유한회사 지분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 이
라는 제목으로 지방의원
의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와 문제점을 보도하였
습니다.

